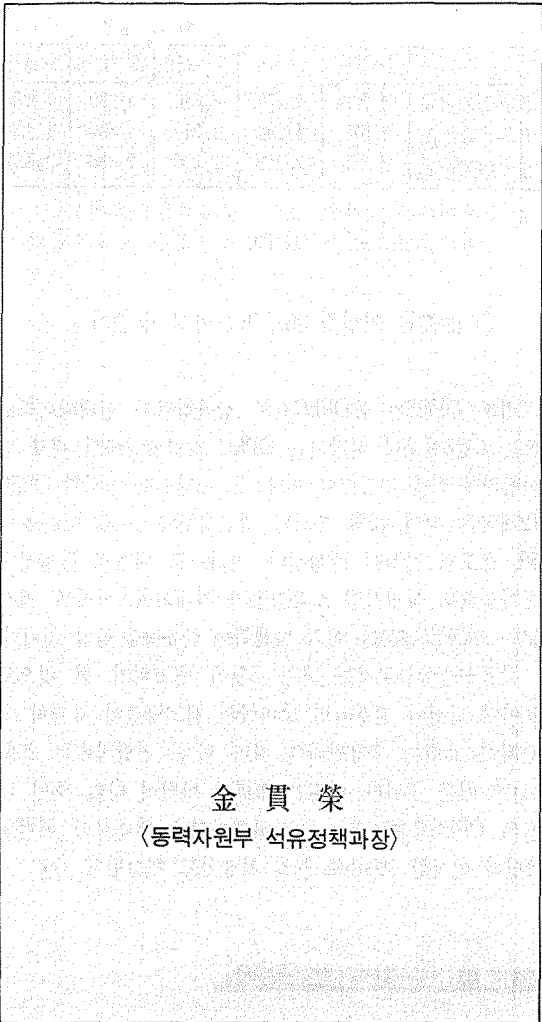


I. 머리말

국내油價가 주로 국제原油價와 환율이라는 外生變數에 좌우되듯이, 석유정책 또한 이들 油價變數와 경제, 사회 환경에 따라 변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국제石油市場 변화를 국내경제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短·長期的 政策對應의 결과인 것이다.

88년도 석유정책방향



金 貫 榮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장)

이에따라 과거 高油價시에 추진되어오던 석유정책의 맥락은 국제油價의 하락추세에 따라 그 운용면에서 현실에 부합하기 위한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했다. 85년말 이후 4차례의 국내油價를 인하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오던 관념들이 低油價와 경제구조의 변화 및 自律化 추세등으로 크던 작던간에 현실과 괴리가 발생되고, 이와같은 국내의 여건의 변화 추이는 빠른시일내에 정책에 흡수되어야 할 필요성과 정책운용의 설정방향을 시사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의 상당 부분이 정책으로 옮겨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석유정책은 이와같은 여건변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국민의 요구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석유관련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과 논의가 절실히 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그 결과에 따라 현행 석유정책은 수정,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경제, 사회변화와 궤를 같이할 수 있는 정책의 모색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II. 石油政策의 목표와 운용기조

1. 石油政策의 기본목표

석유정책의 목표는 석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있다. 石油에너지가 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국민경제활동에 필수불가결한 基本材로서 生産, 成長, 物價, 국제수지등 經濟各部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석유류의 안정공급은 2차적인 정책목표가 되고 있으며, 1차적으로 가격안정이 수반되어

야 한다.

소요석유류의 공급과 가격안정은 대체적으로 상반된 경우가 많으며, 공급이 안정될때는 가격이 중요성을 차지하고, 가격이 불안정 하게 될 경우는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석유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공급과 가격의 장기적 조화를 이룩하는데 있게 되며, 이는 석유류 수급의 안정확보와 경제적 공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政策운동 기초

石油의 공급과 가격이 서로 상치된 行態를 나타내게 됨에 따라 정책운동기조도 공급과 가격관리측면에서 각각 접근하여, 전체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안정확보를 위해서는 原油도입선의 확보, 자주개발原油의 증대 및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原油도입선은 原油매장량과 생산량의 편제에 따른 지리적 위치, 産油國의 政情, 수송거리등과 국제석유시황의 변화에 따라 안정성과 경제성이 최대화 될 수 있는 線을 따라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석유류의 경제적 공급측면에서는 인위적이든, 自律的이든간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제고,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및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른 품질개선 및 향상을 유인할 수 있는 Motive의 제공이 필요하다. 즉 석유류수급이 시장경제와 합리성에 따라 자율적인 수요의 필요성으로 공급이 결정되어야 하나, 국제에너지 자원환경에의 지나친 집착과 전반적인 정부정책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따른 합리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석유제품의 가격결정, 관련 정부지원등에 있어서 배려가 있어야 하며, 현재에 다소 가격의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저가공급을 위한 石油비축, 油田개발, 시설의 고도화등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이 있어야 한다.

여하튼 이들 석유류의 안정확보와 경제적 공급에 대한 정책운동은 소비자 정제주의라는 기초하에서 발생된 産物로서 우리나라에 석유정제시설이 도입된지 4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해외자주개발 原油의 도입, 국내대륙봉개발, 비축수준의 증가등 原油확보에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석유시황도 석유제품의 수출입증대가 확대될 추세에 있는 한편, 경제규모의 확대 및 자율화추세등으로 석유제품의 국제교류는 경제성에 따라 증대될 전망에

있고, 석유제품의 수요또한 인위적인 관리가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이러한 소비자정제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운동기조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퇴색될 것으로 예견되나, 이러한 요인이 현실화되어 국내석유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까지는 현재의 정책운동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政策운동의 수단

정책수단의 유무와 그 형태는 석유산업의 추진방향과 이에 대한 정부정책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통제의 강약과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수단의 형태는 다르게 되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정부통제의 최후보루로서 정제생산량지도, 정제설비의 허가등 석유류공급의 안정확보를 위한 정책수단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완화내지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석유파동기에 뿌리를 내리게 된 정책수단이 큰 변화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오고 있으며, 석유류공급관리를 위해 정제업, 정제시설 및 판매업에 대한 사업허가권, 석유류수출입 규제 및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에대한 조정명령권이 있고, 가격관리수단으로서 최고 및 최저가격결정권을 갖고있다.

이러한 정책수단확보는 석유산업의 대부분을 사실상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행정적, 정책적 정부개입은 석유파동기와 경제의 양적성장기에서 소요석유류의 안정공급을 도모하고, 산업 및 물가정책등 전반적인 정부정책수행과 일관된 연관관계를 맺어 조화를 이루기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의 정부정책수단의 확보가 오늘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하에서 공급과 가격 양측면에서의 통제수단은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도가 크지않는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Ⅲ. 石油政策의 환경변화와 증장기과제

1. 石油政策의 환경변화

석유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는 급락후 조정단계를 거쳐 새로운 가격체계의 형성단계를 받고 있는 국

제석유시장의 여건변화, 우리경제의 규모확대와 질적성장에 따른 경제의 개방화 및 자유화추세, 에너지의多元化 및 석유제품의 질적향상등 정유산업에 대한 욕구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유산업은 과거 석유파박시 주로 정부간의 原油도입계약과 정유사의 단순정제에 의한 공급위주의 양적성장에 기인하여 精製能力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이러한 구조에서의 공급전략으로 原油도입은 주로 정부가 담당하고, 정유사는 정제를 위주로 하는 정부·정유사의 역할분담이 강한 편이었으나, 80년대 중반기를 거치면서 국제석유시장은 공급과잉 현상이 두드러졌고, 석유수요구조 변화와 에너지의 다원화가 현저하여 공급위주의 석유산업은 점진적으로 수요관리부문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유산업을 原油도입, 정제, 석유제품의 품질등 석유관련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原油도입가(CIF)를 日本과 비교해 보면 배럴당 85년 0.32달러 86년 1.29달러 87년에는 0.01달러나 低價 도입되었다. 물론 日本의 경우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석유시장에서의 역할을 감안한 정책적인 原油도입관계로 인한 도입가의 상승요인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는 우리나라 정유사도 이제 석유시장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 자료, 정보의 축적과 해외지사설치등으로 석유거리에 직접참여, 산유국과의 도입계약 뿐만 아니라, 低價 현물구매역량등 석유시장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제석유시장의 여건은 국내정유사의 대응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반면, 국내정유사의 대응은 능동적이라기 보다는 수동적인 측면이 강하고 보수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石油情勢는 70년대의 수급 팽박, 80년대의 공급과잉에서 향후 다시 수급팽박으로 전이될 전망에 있으나, 에너지의 다원화, 산업구조, 석유수요구조, 석유거래방법등의 변화로 향후 석유파박의 양상을 1970년대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즉 수송, 가정용 경질연료유에 대한 공급대응대책과 石油도입에 대한 자주개발 원유도입능력제고 및 가격보편적 효과를 위한 先物去來를 이용한 시장활용이 없이는 精製만을 위한 정유산업은 사양산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 정유사가 해외油田개발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정유사의 대응은 정부통제로 인한 제약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경영기반에 대한 정부의존적인 인식, 보수적인 석유시장 및 개발사업 참여등의 타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현재로서 정유사 스스로의 자생적인 대응능력은 허약한 점이 많다. 이러한 요인들은 앞에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 정유산업이 주로 정제부문에 기반을 둔 것으로 原油개발등 上流部門이 취약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환경변화는 경제의 질적 향상에 따라 민간주도형 자율경제기조로의 전환과 개방화 및 국제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자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감참여와 책임을 확대한다는 자율경제체제의 확립, 공정경쟁 질서확립, 균형경제의 실현 및 국제협력경제의 지향을 요지로 한 경제정책운용 방향을 최근 수정한 바 있다. 이는 민간의 능력과 창의성의 극대화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정유산업에 있어서는 정유사의 국제석유시황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국내油價 및 석유유통의 자율기반형성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정유사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국내에너지源間의 수요구조는 수송등 輕質油 일변도의 수요증가, 86년이후 4차례에 걸친 국내油價인하로 인해 경쟁 및 대체상관성이 거의 均衡點에 있는 연탄과 경유, 유연탄과 B-C油의 효율적인 수요관리, 가스 사용의 급증으로 輸入가스량이 국내정제 생산량을 상회한 한편 가스도입에 있어서는 도입시설, 공급배관 건설등으로 막대한 자본의 투입과 자본회임기간이 길어 가격형성에 따라 가스의 국내생산부문과 수급부문에 비효율성의 초래가능성이 있다는점등 에너지源간의 수급구조와 효율성이 파행적일 수 있거나 流動的인 부문이 많다.

〈국내油價 인하 추이〉

	1986 2.20	1986 3.30	1987 10.16	1988 3.11	計
인하율(%)					
稅前工場渡	12.93	10.70	11.01	11.34	37.25
消費者價格	11.2	10.0	10.2	10.6	34.7

이와같은 환경변화의 대응으로 정유산업의 자율화는 필연적이며, 국제石油情勢, 에너지자원배분의 효율성, 국내경제·사회의 자율화추세 및 정유산업의 대응능력이라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와 방향으로 정유산업의 자율화가 추진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중장기 石油政策의 과제

(1) 原油도입의 안정 확보와 효율성제고

국내소요 原油의 안정적 확보는 石油가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혈액과 같은 역할과 安保를 위한 戰略物資라는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있으며, 原油도입의 효율성은 석유제품의 低價공급과 주로 정유사의 이익증대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안정공급이 장기정책적이고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데 비해 효율성제고는 단기적인 시장활용이고 원유비용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이는 現物原油와 장기계약原油의 도입비율에 관한 문제로 이를 조화있게 운영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제石油시황에 따라 효율성제고를 위한 도입비율의 신축적 배분
- 자원이 풍부하고 근거리에 위치한 中共, 소련, 알라스카 등의 原油도입은 경제적 측면에서 도입노력 지속
- 공급 과잉시에 상대적으로 비용을 더 많이들여 장기계약도입을 유지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수급필박시 안정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장기계약이 지속되어야 할 경우는 안정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교등 정치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 原油도입비율이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결정되든 그 과정에 있어서는 기저에 OPEC의 石油매장량이 전세계 매장량의 약 83%에 달해 향후 페르시아灣에 대한 石油의존도는 높아질수 있다는것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
- 이렇게 결정된 原油의 확보는 직접적 통제수단에 의한 것보다는 가능한한 정유사등 민간부문에서 商業的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점.
- 국내정유사의 석유수송부문의 적극참여로 국적선적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한 비상시 수급대책과 안보적 차원에서 비축유의 확보와 확보된 비축유의 경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原油의 경우 이미 안보비축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축정책은 신축적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안보대응물량등 일정수준의 戰略비축수준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시황에 따른 완충등 경제적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전략비축비용은 이로부터 충당될 수 있는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석유시황에 따른 적정비축량의 설정은 가격전망이 낙관적일 경우 73일분, 비관적 상황일 경우 109일분, 중도적일 경우에는 80일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2) 原油의 자력공급능력 확대

本源的인 石油안정확보를 위하여 2000년까지 자주공급을 20% 달성을 목표로 국내외 油田개발의 확대와 해외 기계발유전에 대한 지분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유전을 보유하지 않고는 정유산업은 구조적으로 석유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지 못할 것이며, 제3의 석유위기를 가상해 볼 때 정유업의 사양화 뿐만 아니라 존립자체도 문제시될 것이다.

油田개발이 막대한 자본소요와 자본의 장기회임성으로 지금까지는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참여 방향은 국내외자본 및 석유회사와 콘소시엄으로의 진출을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투자위험을 줄이고 자본의 장기회임성을 회피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계발 생산油田에 대한 지분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精油産業의 구조개편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유류의 안정공급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으나, 정유업에 대한 규제와 보호를 동시에 가해온 결과 경영에 대한 자주적인 책임감의 결여를 초래하고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역기능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세계적인 石油수요의 감퇴와 가동률저하,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보급확대로 B-C油등 일부유종의 공급과잉, 국제原油價 하락, 산유국의 하류부

*韓國開發研究院 발행 에너지부문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1987.11)

문 진출등으로 정제업에만 의존한 석유산업은 더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石油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자율적으로 신장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국내적으로 자율화가 대두되고 있어 향후 石油産業에 대한 自律化의 추진을 불가피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기반조성이 시급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기존 석유사업경험 및 영향력을 활용하여 관련 종합에너지 산업으로 확대와 내적인 경영개선을 통하여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유산업의 구조개편은 필연적이며, 현재의 여건변화 추세로 보아 이미 추진되어야 했거나 추진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데 재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西歐에서는 80년대 중반 이후 잉여정제시설의 폐기와 重質油 분해시설의 건설, 事業多角化 특히 가스사업과 代替에너지개발사업에의 확대, 석유화학공업에의 참여등 꾸준한 領域擴大와 투자개발이 이미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비교분석 검토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油價制度의 自律化

현행 油價관리제도의 골격은 1970년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기조와 석유과동기를 지내면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운용기조와 민간주도형의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있어 정책운용면이나 經濟環境에의 적응면에서 정부통제의 완화 내지는 油價자율화 방향으로 제도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고려할 수 있는 油價自律化의 方案으로는 중간단계로 運動制를 거치는 방안과 油種別, 地域別 자율화 또는 市場特性에 따라 현행 석유제품을 몇개의 그룹으로 分類하고 그룹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거나 流通단계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등이 있으나, 향후 추진방향으로 국내의 여건변화 추세에 적응하고 油價제도 변경에 따른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가급적 완화할 수 있게끔 점진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油價自律化방안은 국민적 합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 향후 국내 油價등락에 따른 제조업의 원가, 수송요금, 物價등의 변동에 저항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油價자율화가 어떤 방안으로 시행되더라도 제도의 메커니즘은 누구나 알기 쉽고 대국민 설득이 용이하도록 객관화된 방식이 되어야 하며, 위기시 통제권의 유보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석유정책의 목표에서와 같이, 油價관리방안이 궁극적으로 石油을 안정적으로 공급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통제를 하든 자율화하든 공급보장은 필수적인 것이며, 油價자율화하는 공급이 안정된 상황에서 경제, 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投入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 또는 관리 수단의 변경으로서 부여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5)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제고

가. 석유제품의 수효변화와 품질향상

세계의 에너지소비구조는 1차에너지중 石油비중 감소로 1980년 43%에서 86년에는 38%로 감소한 바 주로 석유제품 중 중질연료유는 절대물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重質연료유는 1973년을 정점으로 하여 연평균 약 4%씩 감소된 반면 輕質油의 소비비중은 80년 30%에서 86년 34%로 경질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석유제품 수요구조도 83년부터 輕質油수요가 重質油수요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87년에는 69%, 1991년에는 72%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輕質油의 수요증가는 美國등 西歐의 경질화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품질고급화 및 향상과 환경대책으로서 저유황화가 뒤따르게 되며, 그 결과로 석유제품의 세분화 및 질적향상과 육상수송소요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 적정수준의 重質油 분해시설 설치
 - 重質油 분해시설 설치에 따른 수급의 적정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석유제품 수출입의 합리적 운용
 - 환경대책과 에너지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제품의 세분화, 난방용경유와 수송용경유의 분리등과 이에따른 流通등 공급방안
 - 석유제품의 육상수송소요증가에 따른 장거리송유관건설 추진등이 석유제품의 수효변화와 국민의 품질향상 욕구등의 추세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나. 석유제품의 사용효율화와 가격체계 개선

그동안의 에너지가격은 대부분이 정부통제하에 결정되었다. 이것은 시장기능에 따른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 보다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요인을 충족시키기위해 인위적인 수요관리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에너지가격도 시장기능과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시기에 온것으로 인위적인 수요구조와 가격이 시장기능으로 전이됨에 따른 파행성과 비효율성이 가능한 축소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탄과 경유, 유연탄과 B-C油, 가스부문의 他에너지源間의 가격체제와 프로판과 부탄수요의 파행성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가격체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석유제품의 가격체제는 우리나라와 근거리에 있는 싱가포르, 日本등의 가격체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가격자유화 제품수출입 자율화등 경제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석유제품가격중 그동안 서민용유류로 보호를 받아왔던 등유, 경유등의 가격은 타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어야 시장경제구조에 부합하는 가격체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석유 流通構造의 합리화

현행 석유제품의 유통체제는 국내 5개정유회사가 생산 제품을 대리점, 주유소등 판매업자를 통해서 팔아야만 하며, 국내판매량에 따라 정유사의 수익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통시장의 쟁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의 강구등으로 점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美國, 프랑스등 외국의 경우, 전체주유소의 17내지 30%를 정유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메이커간의 경쟁이 소비자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수 있도록 pole sign제도를 통한 정유사의 유통시장 참여는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현재 부분적인 정유사간의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소비자 이전단계에서 단절되어 있어 최종소비자의 정유사에 대한 선택 영향력이 없으나, 시장기능이 자율화 후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유사간의 경쟁효과가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으며, 정유사는 가능한한 판매계열화를 통하여 그 효과를 전달하고 소비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기능 확대에 따른 정유사의 유통시장 참여 시 中小流通業界를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의 강구, 현행 代理店 기능의 재정립, 정유사 주유소간 직거래 허용여부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등의 과제가 있다.

IV. 88년도 石油政策방향

1. 에너지政策 추진방향

88년도 국내에너지 환경전망으로 총에너지소비증가는 경제성장추세의 둔화전망에 따라 87년 9.9%의 증가보다 훨씬 하회하는 5.1%로 축소될것으로 보이며, 石油의존도는 44.7%로 87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무연탄비중이 감소하고 유연탄과 LNG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가 요청하고 있는 政策基調를 바탕으로 에너지의 자력공급기반구축 및 이용효율 개선과 에너지시장의 점진적 자율 및 開放기반도모를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輸入資源의 안정 확보 및 경제적 공급
- 國內의 油田 및 자원개발 사업의 활성화
-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지속 추진
- 가정연료 소비구조의 합리적 조정
- 정부규제기능축소 및 시장기능의 점진적 확대
- 양질 저공해 에너지의 보급확대
- 올림픽에 대비한 에너지 안정대책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2. 88년도 주요 石油政策 방향

(1) 原油의 低價도입 및 안정공급기반 보강

무엇보다도 原油도입은 공급과잉이라는 국제석유시황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도입선의 탄력성을 제고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 산유국으로부터 직접구매하는 도입물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現物原油 도입비중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국제시황을 활용한 정유사의 자율적저가도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中東의존도는 가급적 낮추는 것이 좋겠으나, 석유수급의 현실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60% 수준에서 여건에 따라 신속적으로 운영하고 도입선 다변화는 계속적으로 추

진하여 유사시 필요물량 확보영역을 넓혀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향후 시장거래에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先物去來에의 진출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선물거래에 대한 해외연수, 각종연구회, 세미나등에 참여확대등을 통한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2) 原油의 정부비축 및 經濟的 운용

정부비축을 계속 추진하며, 금년까지 당초 정부비축목표인 총 36,000천배럴의 비축원유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비축된 原油중 안보대용 물량을 초과한 물량으로 국제油價의 등락 및 국내외수급사정등을 고려, 신속적 回轉運用 함으로써 경제적관리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시 된다고 보겠다.

(3) 國內의 油田개발의 추진

국내대륙붕 개발에 있어서는 1972년 이후 총 15개굴시추에 136백만달러가 투자되었으며, 試驗結果 87년 12월에 6광구에서 가스층을 발견한 바 있다. 금년에는 이 광구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평가시추 3개공을 5월부터 시추하여 12월경에 완료할 계획이며, 3광구 또는 6광구에 기초시추 1개공과 東海지역에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단독광구에 대한 지질구조를 파악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약 270억원으로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해외油田개발은 위험부담과 자본의 장기회임성등을 감안하여 외국메이저 또는 자본이 기 개발하고 있는 생산유전에 20% 이내에서 2개油田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석유사업기금 300억원을 배정하였고, 해외탐사광구의 진출은 국내정유사를 포함한 콘소시엄 구성으로 15~51% 지분범위내에서 매년 2개광구이상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자주개발 原油도입은 2000년대까지 국내소요량의 20% 도입목표를 설정하여 87년까지 1,110천배럴이 도입되었으며, 금년에는 8,000천배럴을 도입, 국내所要량의 약 4%를 충당시킬 계획이다.

(4) 正유산업의 체질강화

極東石油의 30천B/D 重質油 분해시설이 금년중에 완공될 예정에 있으며, 국내 石油수요의 경질, 저유황 추세 및 국제석유시황에 적절히 대응키 위해 90년 竣工목표로

분해시설 및 탈황시설을 각각 40천B/D 규모를 건설하게 될 것이며, 91년 이후는 수급추이를 보아 적정규모의 시설 설치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정제시설의 효율향상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제시설개조를 추진하고 이의 유도를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 및 稅制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한편 정유사의 건설한 성장여건 조성으로 석유화학부문진출 및 유연탄보급사업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시장기능활성화 및 자율화를 위한 업계협력을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이다.

石油수송의 효율화를 위한 장거리송유관 건설추진은 瑞山~天安간인 1차구간에 대해서는 天安터미널착공, 관로부설로 주요공사가 완료되게 됨에따라 총공정은 86% 수준이 진척될 것이며, 제 2~4차구간사업의 사전준비로 사업주체 확정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5) 양질의 석유제품 공급확대 추진

87년 7월부터 공급개시한 無鉛휘발유는 작년에 공급을 31%에 이어 금년에는 17% 수준으로 올릴계획이며, 1990~91년중 舍휘발유의 무연화를 목표로 하여 생산시설을 확충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저유황유는 90년이후 공급율을 경유 100%, B-C油 80%를 목표로하여 금년에는 경유 85%, B-C油 63% 수준까지 저유황유공급율을 확대시키고 90년 이후는 현행유황함량 기준을 더욱강화한 유황함량 1.0%, B-C油 및 0.2% 경유를 주요도시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제품의 품질제고로서 흑한기용 輕油생산 및 수급원활화를 추진하고 윤활유제품의 품질규격을 강화, 저급윤활유 규격 폐지 및 자동차용 품질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가스보급의 확대

88년 가스수요는 87년보다 122%가 증가한 420만톤으로 가스보급율은 가구수기준 87년보다 5%가 늘어난 3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都市연료의 LNG化를 본격으로 추진하여 금년에 약 10만가구에 추가보급하여 총 55만가구가 LNG를 신용하게 될 것이며, 금년 9월부터 대형건물에는 가스사용을 의무화하고, 도시가스 需用家 및 사업자에게는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른 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해 제2 LPG 輸入基地를稼動하고, LPG 안정공급을 위해 도입국수를 현행 3개국에서 4개국으로 輸入先을 다변화할 계획이며 LNG의 수요개발 및 技術普及의 일환으로 LNG研究開發院을 금년 10월에 建立할 계획이다.

(7) 國內油價관리

금년 3월 基準原油價를 배럴당 18달러로 하여 稅前 11.74%의 國內油價를 이미 인하한바 있다.

따라서 國內油價산정 기준원유가인 18달러이상의 국제 원유의 상승을 가져올 경우는 기초성 석유사업기금 활용과 관세를 조정으로 국제油價의 급변이 없는한 시한부 완충이기는 하나, 배럴당 약 22달러 선까지는 현행 國內油價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油價가 현행 수준에서 등락 또는 안정을 유지하고, 대미환율하락이 지속될 경우는 금년하반기에 國內油價의 추가인하여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차기油價조정시는 國內油價관리의 자율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油種間 가격체계를 P. G Index등에 접근시켜 나가는 가격정책을 추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國內油價의 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석유수출입의 자율화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수출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國內油價체계의 국제화로의 접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8) 石油流通구조의 합리적 개선

현행 유통구조는 1981년 대리점, 주유소의 整數制폐지 이후 주유소수의 급증으로 주유소당 판매물량은 1981년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많아 그결과 경영수지의 악화화 부정유통의 유통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國內유가는 계속인하 되는데도 유통마진을 인상요구하는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의 해결과 에너지시장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유통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

근하되 商標表示제도를 확립하여 유통의 원활화와 소비자 보호하고 석유판매업의 허가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LPG의 경우는 容器 保證金제도를 실시하여 공급자 책임관리체제 확립으로 용기의 所有 및 관리일원화를 추진하고 현대화된 충전소에 자율적인 용기검사권을 부여하는등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V. 맺는말

국내의 석유산업의 주변환경은 급변해 가고있다.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추세확대와 환율, 금리등 국제금융질서의 불안정으로 세계경제전망이 밝지 못한가운데 國際油價는 조정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가격체계의 형성을 위해 진통을 겪고 있으나, 高油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國內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국민의 기대와 욕구는 開放化와 自律化로 表出되고있어 개발년대의 정부기능도 자율경제체제와 균형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 정책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국내외의 변화추세와 전반적인 정부정책의지로 볼 때 석유산업또한 점진적 자율 및 개방화로의 이행은 필연적인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석유정책은 그동안의 정부통제를 가능한한 완화내지 자율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금년에는 이의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과도기에 처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기에 부응할 수 있는 석유정책은 자율화의 준비과정으로 정부통제 운용되고 있는 油價관리제도, 석유수출입제도, 石油流通 및 정유산업의 체질강화등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향후 석유산업의 자율 및 개방화에 따른 副作用을 최소화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외화주고 사온석유 한방울도 낭비말자